

의정갈등의 여파 속 필리핀 의료봉사활동 실시



<전북대학교병원과 의과대학 발대식. 사진제공: 병원홍보실, 필봉16기>

전북대학교병원과 의과대학에서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필리핀봉사단에 따르면 의료진과 학생들로 구성된 필리핀 의료봉사단은 2월 11일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과 의대 4호관에서 병원 및 의과대학 발대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근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준호 교수, 감염내과 황주희 교수, 소아치과 양영미 교수, 김하영(소아치과) 전공의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등 2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필봉 1,3기 김미정 원장이 자녀와 함께 합류하였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 기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의료진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공공의료의 가치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의 가

치를 국경을 넘어 실천한 뜻깊은 활동”이라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강경표)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립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필리핀 Negros Occidental 주에서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조용근 교수의 책임하에 필리핀 라살의과대학과 감염질환 관련 연구 교류를 위한 미팅을 가졌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학생들의 겨울학기가 늦어져서 봉사기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본과 3학년은 겨울학기가 끝나지 않고 방학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번 봉사활동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봉 16기>

봉사 진행 일정

- 2026년 02월 22일(일요일) : 인천 출발(오전), 바콜로드 도착
- 2026년 02월 23일(월요일) : Murcia 진료
- 2026년 02월 24일(화요일) : 후광유지원방문, St. La Salle 대학 교류, Capuchin 수녀원 진료
- 2026년 02월 25일(수요일) : Binalbagan 진료
- 2026년 02월 26일(목요일) : Pontevedra 진료
- 2026년 02월 27일(금요일) : 약물 및 의료기구 전달, 환송회
- 2026년 02월 28일(토요일) : 바콜로드 출발, 인천 도착



<인천공항에서 출정식. 사진제공: 필봉16 >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하였다”

많은 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나누어준다...

진료통계로 보면 진료소 방문 인원은 1543명으로 작년에 비해 2.5배가 늘었고 진단검사 장비를 통해 많은 환자에게 HbA1c와 CRP검사를 진행하였다.

일자별로 2026년 2월 23일 459명, 2월 24일 250명, 2월 25일 419명, 2월 26일 41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 환자 356명, 소아청소년과 388명, 마취통증의학과 224명, 안과 452명, 치과 393명과 외과 소수술 45명의 진료로 1858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음파, CRP, HbA1c 검사 등 다양한 장비를 준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4일간의 진료 및 라살 의과대학과 연구협력, 현지 유치원 방문 일정이 있었고 라살 의과대학에서 국제 연구과제 협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공식 접촉 인사로는 Murcia, Binalbagan, Pontevedra 관계자, Capuchin 수녀원장, St. La Salle University 의과대학장 및 연구부원장 등이다. 특히 라살 의과대학과 MOU체결에는 라살대학교 총장이 직접 서명을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봉사활동 지역으로는 Bacolod city 내 Cabug, Murcia municipal, Binalbagan municipal, Pontevedra municipal에서 4일간 환자 진료가 이루어졌다.

김선준 교수(소아청소년과)

“보너스 같았던 봉사”



2008년에 시작한 필리핀 봉사활동이 교수 신분으로는 마지막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올해는 의대생들 학업 복귀가 늦어져 봉사활동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정연준 단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이준호 교수님 당시 의과학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봉사활동이 현역으로는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감정 정리를 한 상태라 올해는 그저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필리핀봉사단에 새롭게 합류하신 교수님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 때문인지 피드백 시간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학생들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명때리고 있는 예과생들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정연준 단장님의 야심작 초음파도 써보고, 조용곤 교수님 덕분에 CRP, HbA1c 검사도 해보고, 이준호 교수님 도움으로 trapezius TPI도 해보고, 성인 환자들은 김미정 원장님과 황주희 교수님께서 열심히 진료해 주셔서 덕분에 앓튼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간 3번이나 왔었던 맘부칼 리조트에서 함께 온천욕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여러 졸업생들 얼굴들과 장면들이 꼭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른 생일 축하 및 정년 축하 케익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새로운 추억 하나 더해서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준 교수(소아외과)



2026년 필리핀 의료봉사는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자 많은 고민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소감문에서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봉사 일정 자체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8월에 휴학에서 복학하면서 학사 일정이 크게 바뀌었고, 수업일수 문제로 겨울학기

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봉사활동을 위한 일정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준호 학과장님과 여러 차례 상의를 거쳐 어렵게 봉사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의 경우 겨울학기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방학이 없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해외 의료봉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 봉사단은 본과 2학년과 예과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장으로서 이러한 구성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준비 과정부터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봉사 현장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장으로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이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곤 교수님의 합류였습니다. 조용곤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진단검사 장비를 활용한 CRP와 HbA1c 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필리핀 의료봉사의 진료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준호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동형 초음파 장비를 현지에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는 제한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진료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필리핀 의료봉사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현지 약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약품을 구매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약품 수급이 쉽지 않았고, 봉사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약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봉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약품 구매를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이정근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봉사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곳을 직접 알아보고 수고해 주신 덕분에 필요한 약품들을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필봉 1기에 함께했고 필봉 3기 학생대표로 활동했던 김미정 원장님께서 이번 봉사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김미정 원장님 특유의 따뜻한 입담과 밝은 에너지는 봉사단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고, 내과 진료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황주희 교수님께서도 이번 봉사활동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에 임하시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셨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책임감 있게 진료와 봉사에 임해 주신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에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또 계십니다. 치과대학 양연미 교수님께서도 치과대학 학장으로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졸업식 일

정을 마치신 뒤 늦은 시간에 한국을 출발하셔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바콜로드에 새벽같이 도착하셨고, 곧바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피로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봉사에 함께해 주신 교수님의 헌신은 이번 봉사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깊이 남는 부분은 김선준 교수님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김선준 교수님께서 올해 8월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가 교수로서 참여하시는 마지막 해외 의료봉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필리핀 의료봉사에 함께하며 학생들과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과 마지막 봉사를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필봉의 여정 속에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많은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 시간들은 필봉의 역사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수로서의 공식적인 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정신과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필봉의 전통 속에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필리핀 의료봉사에 동행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교수님의 경험과 따뜻한 조언이 필봉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선준 교수님께 깊

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동형 X-ray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봉사활동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동형 X-ray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기에, 내년 봉사활동에서는 반드시 이를 해결하여 보다는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의료봉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과 의료진, 그리고 학생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필리핀 의료봉사를 거쳐 간 많은 분들이 시공간이 지나 다시 봉사단에 합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인으로 성장한 뒤 다시 봉사단의 '졸업 멤버'로 돌아와 후배들과 함께 봉사의 길을 이어 간다면, 필봉의 정진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봉사가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작은 헌신과 마음들이 모여 앞으로도 필리핀 의료봉사의 길을 밝히는 등불



<Murcia봉사후 자원봉사들과 함께. 사진제공: 필봉16기>

이 되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봉사의 여정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조용곤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처음 간 필리핀, 의료봉사 최고!”



갑자기 가게 된 필리핀, 한마디로 많은 것을 얻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해외 감염병연구자원 거점 확보사업을 제안 받고,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교수식당에서 필리핀의료봉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던 김선준교수님과 정연준교수님을 만나 저의 사업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합류하게 되었고, 치열했던 7박 8일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가 보는데, 관광이 아니라 의료봉사단에 합류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진단장비 2대를 후원받아 들고 가면서 매일 100명 정도의 환자를 검사할 1회용 검사키트까지 더하니 짐이 꽤 되었습니다. 겨울인 한국에서 여름기온인 필리핀에 도착해서 적응하기도 전에 매일 매일 낮은 곳에서 경험한 현장은 개인적으로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느꼈던 인상적인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첫째, 매일의 피드백. 단장님으로부터 학생들이 울게 된다는 것을 듣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숙소에 짐을 풀고 시작된 매일의 피드백은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최선의 노력, 그리고 역부족인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복받침의 오열이 이번 봉사에서 제가 느낀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부족과 서툰을 감수하고라도 학생들을 데려와서 배움을 주고하는 교수님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둘째, 카푸친 수녀원의 마리아 수녀님.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둘째날 진료를 시작하기 전, 세팅을 마치고 모

두 함께 수녀님의 기도에 눈을 감았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듣다가 무언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올라와 눈을 떴고, 기도하는 소리와 모습을 스마트폰을 켜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마련해주시는 식사자리에서의 인사와 또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며, 무언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누군가에는 엄마처럼 또 할머니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느낌으로 대하고 있음을 느꼈고, 여기에 다시 온다면, 이 수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지에서서의 검사 경험. 병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자동화장비들은 장비가 작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 검사가 이뤄지지만, 필리핀 의료봉사 현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예러와의 전쟁을 매일 계속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날도 뜨거운데, 예러로 스트레스 받아서 더 얼굴이 달아 오르기 일쑤였고, 한국에 국제전화를 걸어 원인과 대처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검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부랴부랴 합류하게 된 일정이었지만, 큰 보람을 느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경험을 만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열악한 현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준 룸메이트 이준호 교수에게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학생들과 또 교수님, 원장님 모두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수(마취통증의학과, 1기)



언제나처럼 올해 필리핀 의료봉사로 향하는 여정은 유독 고단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공백과 뒤늦은 복귀로 인해 준비 과정부터 예년보다 훨씬 촉박했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선발 절차가 늦어진 데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업 보강 일정으로 봉사 스케줄을 미리 확정하는 것조차 힘들었습

니다.

결국 임상실습 중인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2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학과 2학년을 최고 학년으로 하여, 병원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전무한 의학과 2학년들과 의예과 학생들 중심으로 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과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 봉사에 지원해 주었고 열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약품은 지난 15기때와 마찬가지로 Murcia시 보건소를 통해 이정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하지 못했던 약들을 라살대학을 통해서 구입하려 했으나, 학장님과 직원, 약국을 거치는 행정적 절차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Murcia를 통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의 또 다른 목표는 작년 라살대학과 MOU 체결 이후, 조용곤 교수님이 활동하는 파스퇴르 연구소와 라살대학과의 공동연구를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살 의과대학의Cortes 학장님과 여러 차례 조울 끝에 Sorilla 연구부학장님과 Tampus교수의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 봉사 진료현장에서는 RISE의 대 혁신사업을 통해 구입한 포터블 초음파가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감염 노출에 대한 우려와 블라인드로 시행되는 시술에 대한 부담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번에 초음파를 활용하며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통증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에 익숙해질수록 치료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앞으로는 진단 목적으로도 초음파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초반 며칠간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년보다 부쩍 늘어난 통증환자들 때문에 몸은 고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작은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귀국 후 지독한 몸살감기를 앓게 되었지만, 환자들로부터 얻은 위안이 더 컸습니

다. 무엇보다도 이번 봉사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저를 학생 때 처음 선발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선준 교수님과 정년 전 함께하는 마지막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필리핀 봉사, 그 시작과 끝의 여정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글을 빌려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잠시나마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환자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품었던 초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환자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품었던 그 초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카푸친 아이들의 밝은 모습, 헌신적인 수녀님들과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여러 조력자의 손길은 제가 필리핀 봉사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의대생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정진하겠습니다.

황주희 교수(감염내과)



2024년, 첫 필봉 참여 이후 의정갈등이 시작되었고, 나와 암세포와의 갈등도 함께 시작되었다. 다행히 나의 갈등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끝이 정해져 있었다. 마침내 그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2년 만에 두 번째 필봉에 참여하게 되었다.

2년 전 첫 필봉 참여는 전적으로 내 자발적 의지라기보다 정연준 교수님의 권유가 먼저였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놀란 나머지 “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 대신, “과 교수님들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단은 거절에 가까운 답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학생 때 필봉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나로서는 첫 탈락의 아픔을 준 도전이었다.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고, 15년 만에 학생이 아닌 교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필봉의 가족이 되었다. 결국 필봉에 참여하게 될 운명이었던 걸까?

필봉에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연준 교수님께서 반가워(?)하시는 눈치였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생 때 필봉 출신 ‘성골’ 들만 교수진에 합류했던 모양이다. 지원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는 나는 필봉 교수진의 ‘진골’ 이 되었다.

필봉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내과 의사로서 의료봉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편이었다. 일시적인 지원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늘 따라붙었다. 그러나 첫 필봉 경험은 그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진료 중 환자들이 보여주던 표정, 그리고 진료를 마친 뒤 눈을 마주치며 건네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나’ 하는 부끄러움도 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것이 더 크다고 느꼈다. 자원의 한계 속에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더 컸다. 봉사는 타인을 위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나를 위한 -어쩌면 이기적인- 행위일지도 모르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필봉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두 번째 필봉을 떠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최대 관문이었던 마닐라 공항 세관도 무사히 통과했고 마침내 Bacolod에 도착했다. 2년 전에도 생각보다 변화한 곳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노란 조명 아래 유난히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분위기 좋은 카페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더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첫 봉사 때부터 묵었던 Saltimboca Tourist Inn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샤휴기 물줄기까지도..

의료봉사는 Murcia에서 시작했다. 2년 전과 환자군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다. 비교적 잘 사는 도시로 보였고, 급성기 환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많지 않았다. 대상포진 환자가 두 명 있었는데, 항바이러스제를 준비하지 않아 당황했지만 다행히 Murcia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했다. 이번에는 조용곤 교수님이 합류하시면서 CRP와 HbA1c 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가져오셨는데, CRP를 확인할 수 있어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HbA1c 로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진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날은 Barangay Cabug에서 진료했다. 진료는 Luz Maria 원장수녀님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수녀님의 강건한 목소리는 공간을 단숨에 울릴 만큼 힘이 있었고 그 울림이 내 마음까지 깊게 들어왔다. 환자들은 호흡기 증상과 두통, 어지럼증,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용 중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요청하는 환자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 한동안 복용하지 못했다는 환자는 여전히 있었다. 진료가 끝난 뒤 저녁에 열린 수녀원 소녀들과 우리 봉사단 학생들의 공연도 훌륭했고, 언제나 그랬듯 감동적이었다.

필리핀 의료 봉사단

JBNU Medical Service in Philippin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 DENTAL SCHOOL



Date 2026.02.22. - 2026.02.28.

Sponsors



셋째 날 방문한 Binalbagan은 봉사 지역 중 급성기 환자가 가장 많았다. 환자 대부분은 호흡기 증상이었는데, 최근 인근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현지 봉사자가 이야기해 주었다. 두 분의 할머니에게서 “HANSOME”, “Thank you, Sir.” 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짧은 머리 때문에 남자로 오해하신 것 같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냥 눈웃음으로 답했다. 가장 환자가 많을 것 같던 지역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 환자가 뚝 끊겼다. 예상보다 환자가 적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저녁 행사가 있다며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진료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넷째 날은 Pontevedra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곳도 Murcia와 비슷한 경제 수준으로 보였는데,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구매할 능력이 있어 보였음에도 다른 지역보다 복용 중인 약을 달라는 환자들이 유독 많았다. 피부질환 환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옴이 의심되는 일가족 3명이 왔는데 다행히 permethrin이 준비되어 있었다. 눈이 아프다는 9세 남아 아이가 있었는데, 병력을 들어보니 휴대폰을 볼 때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는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었다.

넷째 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칸라온 화산 폭발’ 재난문자와 알람이 울려 잠시 긴장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큰 사고없이 16기 필리핀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를 제외한 필봉 교수님들 모두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서 기가 빠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2009년부터 필봉을 이끌어 오신 김선준 교수님, 정연준 교수님, 양연미 교수님은 정말 멋져 보였고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항상 유쾌하시고 학생들에게 다정하시면서도 때로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호 교수님을 보며 필봉 출신 교수진을 뽑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나는 교수진 중 막내이고 체력도 막내인데, 이번에 김미정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모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다만 내가 봉사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았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힘들었던 기억은 금세 휘발되고 추억만 남았다. 이번 필봉 역시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김미정 원장(신장내과, 1, 3기)

“17년의 시차를 넘어, 다시 마주한 의료봉사 현장”



지난 2월 22일부터 29일 새벽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009년 본과 1학년 시절의 첫 방문, 2011년 두 번째 발걸음, 그리고 17년이 흘러 의료인으로서 다시 찾은 세 번째 필리핀은 제게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아홉 살 된 아들 지운이와 동행하여 더욱 특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1. ‘살TIM보카’와 빗속의 질주, 그리고 1970년대의 풍경

봉사 기간 중 머물렀던 숙소 ‘살TIM보카(Saltimbocca)’는 전북대 의료봉사팀의 역사가 깃든 상징적인 곳입니다. 17년 전, 꿈 많은 의대생이었던 제가 밤새 환자들을 생각하며 설레어 하던 그 낡은 방을 이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바뀐 것 없이 그대로인 풍경, 그리고 여전히 잘 나오지 않는 물줄기마저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 소통과 성찰로 채워진 봉사 일정

1일 차(Murcia City): 쾌적한 날씨 속에서 설렘 가득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진료를 마쳤습니다.

2일 차(St. La Salle 대학교 & Capuchin 수녀원): 대학교 교류 행사를 마친 뒤 찾은 수녀원에서 감동적인 재회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저를 기억해주시며 건네신 수녀님의 ** “I remember you” **라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뜨거운 기도는 알 수 없는 몽클함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3일 차(Binalbagan City):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와 지운이의 늦잠으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합류한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결핍 속에

서도 우리를 기다리던 간절한 눈빛들을 보며, 의료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희망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일 차(Pontevedra City):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날이었습니다. 진료의 주도권을 후배 학생들에게 맡기고 저는 옆에서 서포터(Support)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후배들이 환자를 마주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곁에서 돕는 시간은, 직접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깊은 교감을 안겨주었습니다.

3. 성찰의 시간: 기계적인 진료를 넘어 ‘교감’으로

매일 밤 이어지는 리뷰 시간은 저를 다시 세우는 거울이었습니다. 17년 전, 교수님들께 호되게 혼나며 의료인의 자세를 배우던 시절을 추억하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다시 왔는가?’ 그 질문 끝에 깨달은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진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소통, 그리고 함께 동행한 후배들과의 깊은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일군 인술의 장

이번 봉사는 우리 팀의 기틀을 닦으신 소아과 김선준 교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봉사활동이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외과 정연준 교수님, 치과 양연미 교수님, 마취과 김준호 교수님, 감염내과 황주희 교수님등과 함께 호흡하며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5. 나눔의 가치를 배운 아이, 그리고 고마운 인연들

아홉 살 지운이의 적응력 또한 이번 여정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마당에서 개미를 잡고 카드놀이를 하며 온몸으로 부대꿨던 지운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던 어린 아들을 친동생처럼 챙겨준 의대생 및 치의대생 후배들, 그리고 아이를 인자하게 보살펴주신 교수님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엄마인 저도 온전히 진료와 소통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6. 마치며: 비워진 마음을 채워준 선물 같은 시간

사실 이번 봉사를 떠나기 전, 저는 일상의 현실에 지쳐 마음이 많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7박 8일은 제 비워진 마음을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9일 새벽 1시, 지운이와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깊은 안도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17년 전 교수님들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을 뒤따를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도 이 숭고한 여정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함께 땀 흘린 모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양연미 교수(소아치과)



2026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16기 필리핀 바클로드 의료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명과 소아치과 레지던트 3년차 김하영 선생님이 참여하여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를 실시하였다.

봉사단은 2월 22일 출국하여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나는 23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식 참석 일정으로 인해 봉사단과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따로 출국하여 24일 새벽 호텔에서 봉사단에 합류하였다. 첫날 봉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을 때 김하영 선생님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해 봉사 둘째 날 학생들과 함께 진료를 진행하면서, 첫날 김하영 선생님이 상당한 어려움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 둘째 날 진료는 수녀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여전히 우식이 심한 치아의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발치보다는 스케일링이나 우식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더 많이 시행하고 싶다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봉사에는 이동식 치과케어 3대를 준비해 갔는데, 이동식 체어를 이용한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술자의 피로도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며 마취, 발치치료, 기구 소독 등 진료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필리핀 해외봉사 활동은 학생들이 치과의사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치과의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김하영(소아치과 전공의/전문의)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에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첫날에는 교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헤드를 맡아 진료를 진행해야 했기에 매우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치과팀이 서로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진료를 마칠 수 있었고, 그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에는 교수님이 합류하시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surgical 발치까지 시행하며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였지만, 여전히 환자들에게 통증 없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보며 의료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치료가 발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어린 아이들의 영구치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매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게나마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필리핀 현지 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러한 봉사가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헌신해 주신 의과팀과 치과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의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김민지(의학과 2학년, 학생대표)



매일이 고군분투였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하루를 시 단위로 쪼개어 몰입했다. 잘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버텨내보자는 위안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전쟁 같았던 7일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내가 더 잘하지 못했던 만큼 단원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것 같아 미안하고 속상하다.

마지막 봉사 하루를 남기고 한 피드백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원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고, 그제야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했다. 경험자의 이야기에 좀 더 일찍 관심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수님들이 해주는 조언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순간이 후회된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자 생각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학생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머릿속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본2들은 당장 다음 날 더 나은 봉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체계를 전면 수정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준 동기들과 그 변화를 기꺼이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덕분에 마지막 봉사 날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시간이었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일찍 체계를 잡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의 환자와 소통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봉사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진료 부서를 여러 차례 교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여 시간과 경험의 깊이에 차이가 생겼다. 누군가는 더 오래 진료보며 깊은 감동을 얻었을 것이고, 누군가

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속에서 아쉬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 점이 리더로서 많이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번 봉사의 가치는 단순히 의학적 경험의 양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7일의 봉사 기간과 그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나누며 이 봉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배려와 책임감,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했던 마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는 환자를 한 명 더 보았고, 누군가는 교수님 곁에서 더 많은 의학적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 경험의 차이가 봉사에 대한 누군가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거나 다른 누군가의 노력을 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번 봉사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준 모든 단원 덕분에 가능했다. 모두가 정말 수고 많았고, 한명 한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나를 끝까지 믿고 함께해 준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교수님들과 선배님께도 계속 방향을 잡아주시고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유희(의학과 2학년, 학생부대표)



의정 갈등 이후 바쁘게 진행되는 특별학기 속에서 16기 필리핀 봉사단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4기 봉사 당시 느꼈던 특별한 감정과 기억이 떠올라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6기 봉사단은 본과 3학년과 1학년 없이 본과 2학년과 예과생으로만 구성되었고, 방학 없이 준비하느라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바쁜 시험 일정 속에서 교수님들과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특강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수님들과 단원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6기 봉사활동은 준비한 대로만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약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다 보니,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약제부 세팅 과정에서 ‘인계받은 대로,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주변의 소중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부터 피드백을 수용해 테이블 세팅을 새로 했고,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약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와 함께 인력 배치를 고민하며 처음에는 접수부와 약제부에 집중했습니다. 환자가 끊이지 않게 접수하고, 조제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째 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결국 ‘진료’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역할 분담을 완전히 새로 짜서 진료부에 학생들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이후 단원들이 서로 그날 어떤 진료 경험을 했는지 열정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필리핀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첫 다짐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메인 접수도 약제도 아닌 진료여야 함을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넷째 날이 되어서야 명확히 알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4기 때와 달리 임상 과목을 배운 뒤 참여했기에 지식적인 부족함이 덜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들이 온전히 내 지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것조차 하나로 통합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니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환자’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모른다고 피하기보다 모를수록 더 오래, 자세히 관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경으로 고막을 보는 것도, 청진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시간 동안 환자를 보고 듣고 만지려 노력하니 점차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과 3학년 병원 실습에서도 더 많이 보고 배우려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드문 ‘단독 진료’의 기회는 봉사라는 특수한 라포 덕분에 가능했으며, 이는 의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상 생활 중 처음 보는 환자를 마주했을 때 다시 교과서를 찾아보셨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겠습니다.

필리핀 봉사단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주 특별한 단체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경험시켜 주시려는 교수님들의 노고를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기 때는 선배님들을 보며 배웠다면, 이번 16기에서는 동기들과 합심하며 예과생들에게 의지가 되는 선배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해 준 모든 단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수연(의학과 2학년, 총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돌아오는 길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애썼지만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남는 시간입니다.

선배들이 매년 이 필리핀 해외봉사단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했다는 이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과 의료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힘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 제한된 의료 자원, 설 틈 없이 이어지는 진료일정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음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값진 만남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준비하며 만났던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현지에서 함께 호흡했던 모든 인연들은 이번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내일의 역할을 점검하고, 약품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나누던 시간들, 서로를 격려하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였던 그 시간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의료인으로 성장해가는 동료들 만났던 경험이었습니니다.

무엇보다 잊히지 않는 것은 환자분들의 표정입니다. 혈당 검사를 해야 했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 채혈이 쉽지 않았고, 결국 다섯 번이나 바늘을 찔러야 했습니다. 횡수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혹시나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은 오히려 저를 향해 “괜찮다”, “고맙다”며 웃어주셨습니다. 한 번, 한 번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제가 더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의료 행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시던 환자분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접했던 ‘환자 중심 의료’라는 개념이, 그 순간에는 눈빛과 표정, 악수의 온도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성취를, 아주 잠시지만 분명하게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자기소개서, 필리핀 봉사단 지원서에 적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의 저는 어쩌면 막연한 다짐을 적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 기간 동안, 누군가의 혈당, 혈압을 재고, 약을 설명하고, 실제 진료도 보면서 도움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 문장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기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번 필리핀에서의 일주일을 마음 깊이 간직하려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글로만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환자를 위해 행동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작은 검사 하

나, 짧은 설명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이 일주일엔 제게 오래도록 남을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느낀 다짐과 감동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의대 생활과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역시 후배들에게, “왜 매년 이 봉사를 다시 찾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의학과 2학년, 대외협력부장)



저에게 필리핀 봉사단은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기억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기에 더 선명하게 남아 있고, 고되었기에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진, 그래서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제게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장면은 현지 주민들을 직접 진료하던 순간입니다. 둘째 날, 수녀원에서의 봉사가 끝나갈 무렵 김선준 교수님께서서는 혼자 환자를 봐 보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체 속 지문으로만 마주하던 환자와 달리, 아무 조건도 주어지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환자와 마주 앉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머릿속이 새해였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남았지만, 아이들의 작은 몸에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듣고, 이경으로 귀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던 그 순간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그런 저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겨주는 환자들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책임감이자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배우고 더 준비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

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함께한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있는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의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지만, 의료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팀워크와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의료라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기대며 결국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기획하고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주시고, 진료 중에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시며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점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던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며,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반성도 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 힘듦을 앞세운 채 주변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점이 많이 미안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배려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음 기수의 봉사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접수나 약제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교수님 곁에서 진료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진료부에는 본과 2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대부분이었기에, 예과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고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일정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다음 기수에게는 더욱 의미 있고 교육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마음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의료인의 자세와 책임, 동료애와 감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남았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의사가 되어 다시 비슷한 현장에 서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떠올리며 더 단단한 마음으로 환자와 동료를 대하고 싶습니다. 힘들었기에 더 값졌고, 부족했기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의학과 2학년, 약제부장)



필리핀에서 돌아온 지 벌써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지에서 보냈던 1주일만은 믿기지 않을 만큼 짧게 느껴집니다. 처음 필리핀 봉사단 모집 포스터를 보았을 때,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여러 생각과 고민을 안고 지내던 시기였기에,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한 번쯤은 꼭 의료봉사에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든든한 동기, 선배들과 함께라면 학생 시절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단순한 마음으로 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책은 약제부장이었습니다. 직책 소개를 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말이 오히려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직 미숙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한 번쯤 부딪혀보며 성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출국 전까지의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상의하며 약제 리스트를 수정하고,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약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과의 연락은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셨기에 저는 리스트를 정리하고 수정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꾸릴 때에도 선물부장, 약제부원, 접수부장과 함께 비교적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약에 대해 동기와 후배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공유했다면, 현지에서 모두가 더 익숙하게 약을 다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봉사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약품 반입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일부 호흡기 약물과 피부과 연고를 국내에서 준비해갔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다행히 세관에서 상황을 설명드린 후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도착 후, 본격적인 봉사를 앞둔 날 숙소에서 마주한 것은 수많은 약 상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수량 파악, 4일간 사용할 분량 분배까지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한 작업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제부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약 정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약제부는 매일 약 상자들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지쳐 말수도 줄어들고,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서로 많

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약국을 벗어나 각자 원하는 곳을 잠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원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조금 더 여유를 배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료봉사를 하러 온 것이지, 단순히 약의 개수를 세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들 곁에서 진료를 보조하고, 처방과 진찰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약제부장으로서는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인수인계 문서에 자세히 남길 예정입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곧 좋은 리더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욕이 앞서서는 만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는 제 모습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부원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며칠간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자 감정 기복이 커지고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의 의사 생활에서도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반복해서 처방전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약을 증상과 카테고리별로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결국 저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에는 환자 문진부터 진단, 처방까지 직접 해볼 기회를 여러 차례 얻었습니다. 청진과 타진을 배우고, 교수님의 지도 아래 환자를 마주하는 경험은 그 어떤 피로도 잊게 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외과 진료를 참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봉합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술기를 시행해보는 경험은 매우 긴장되면서도 벽찬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의료인의 길 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 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약제부 동료들,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응원해주었던 모든 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따뜻하게 챙겨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고, 이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서현(의학과 2학년, 접수부장)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조서현입니다.

필리핀 봉사 활동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친한 동기가 이전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였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들다고는 말하지만 즐거워하는 눈빛과 봉사가 끝나고도 같이 다녀온 사람들과 가족같은 분위기가 인상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1년 반의 휴학은 저에게 더 이상 소극적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필리핀 봉사활동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번 필리핀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조용한 학교 생활이 목표였던 평소의 저와 어울리는 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하면 부담이 적은 일이지만 특별학과와 겹쳐 학기 중에 틈틈이 준비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각종 소모품 준비로 바빠 정작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학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봉사하러 떠나기가 무서웠습니다. 이런 마음에 더해 낮을 가리는 성격 탓에 떠나기 전 봉사단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고 모두에게 한 층의 벽을 쌓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봉사 첫째 날까지 저의 목표는 무사히 봉사를 마치고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은 둘째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수녀원에서 아이들의 공연을 보고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도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건 없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왜 이

렇게까지 나를 보고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수녀원 아이들의 공연을 보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 봉사활동에 후회없이 진심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아쉬웠고, 로테이션해 말는 파트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조금 더 공부를 해와서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봉사일을 앞둔 피드백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환자를 많이 진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봉사활동의 목적이자 다른 봉사활동들과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이 직접 진료를 보고 의료봉사활동의 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날, 그때까지 해왔던 시스템을 버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 오전, 김선준 교수님 옆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까지 내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의 첫 환자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왔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환자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과 제 미래에 대해 방관자 같은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 변하겠지라는 막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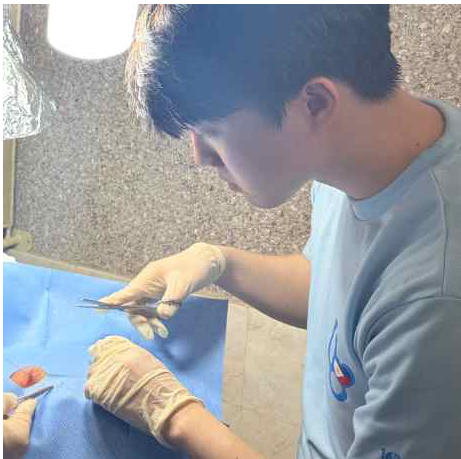


<라살의과대학 학장님과 면담. 사진제공: 필봉16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를 바꿔보고자 필리핀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나, 평생 살아온 삶의 관성은 한 번으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주위 동기들이나 후배들, 치과대학 선생님들에 비해 소극적이었고, 무관심했으며, 이런 저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후회도 많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매일 피드백 시간에 환자와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에게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의 진심을 마주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이런 깨달음만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사단은 ‘가족’이라는 정연준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칫 개인주의로 번질 수 있는 의대생활 중에 서로 돕고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되어준 모든 교수님들, 졸업하신 선배님들, 예과 후배님들, 치과대학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동기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승준(의학과 2학년, 진료부장)



피드백 시간 중 “영원히 아웃사이드 일 수는 없다. 언젠가는 자신이 환자를 진료하고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면허 따고 집에서 쉴 사람은 없다.”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지난 의대생활을 돌이켜보면 환자는 멀고, 책임은 내것이 아니고 의학은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 그저 학문으로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필봉에서 처음 진료한 2살의 크리스티나의 차트지에 서명을 했을 때 이 아이의 건강이 내 결정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메디

컬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더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후 필봉의 모든 순간이 재미있고 의사로서 앞으로 성장하는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이후에 저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구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려도, 허리를 못 펴도 다음 수술에서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사 술기를 할 때도, 환자 진료를 볼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필봉이 아니었다면 이런 마인드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그들이 가지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질환들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마주하면 의사로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많은 환자를 봤지만 겨드랑이 농양을 절개배농할 때 고통으로 울부짖던 20대 여성환자와, 종아리 MPS로 주사를 맞은 후 너무 아파서 손녀의 사진을 보며 울던 할머니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진료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그들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의사의 진단과 치료는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과 매일 밤 함께 성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학우들에게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신가연(의학과 2학년, 외과부장)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 이후 학교로 복귀한 시점에서 필리핀 봉사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열떨결에 지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지원했던 터라 16기 단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예로부터 필리핀 봉사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고, 그만큼 성적도 많이 반영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갑작스럽게 복귀한 데다 압축 학기 일정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덜컥 붙어버리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학교생활과 봉사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새 2월 22일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막상 맞이한 봉사 첫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봉사였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전날까지도 배운 내용을 복기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멸균장갑을 낀 손으로 무심코 책상을 만지는 등의 실수를 반복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봉사 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수업 내용도 계속 복습했지만, 초반에 큰 실수를 하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져 준비한 만큼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크게 남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봉사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미리 정확히 알았다면 준비의 방향도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낸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봉사 시작 전부터 저는 학생의 역할을 스스로 한정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접수부에서 병력청취를 돕거나, 약제부에서 일이 밀리지 않도록 빠르게 약을 조제하고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역할 또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제 가능성을 그 안에만 가두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 3일차 피드백 시간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봉사의 진정한 의의는 단순히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환자를 진료하고, 스스로 고민해 진단을 내려보고 처방까지 생각해보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들요. 물론 아직은 서툴지만, 한 명의

예비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마주해보는 경험이야말로 이 봉사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진찰하고, 조금 더 제 생각을 표현하고, 지식을 써먹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소감문을 쓰기 전, 14기와 15기로 참여하셨던 선배님들의 소감문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의사로서의 사명감, 혹은 의정 갈등으로 지치고 흐트러진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셨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덕분인지 봉사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글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반면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기본적인 신체진찰을 통해 많은 환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더 성장해야 할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번 봉사는 제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교수님들과 16기 단원들,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버텨낸 동기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준 후배들, 그리고 협력해주신 치대

선생님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 봉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울고 웃고, 지칠 때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그 시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저의 자산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더 많이 아쉬웠지만, 그렇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함을 정확히 마주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환자를 대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이나마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연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시작점을 찍어준 필리핀 봉사단 16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현규(치의학과 3학년, 치대대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벅찬 감정이 제 안에 이렇게 깊게 자리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능력을 나누고 봉사하러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주

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 그들이 제게 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료를 마친 뒤 환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thank you” 라고 말해 주던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굳어 있던 표정이 편안한 미소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받는 경험은 제 삶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카푸친 수녀원의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환영해 주었던 장면은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몸으로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아이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고 감사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축복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필리핀의 구강건강 현실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충분히 보존 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었을 치아를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의 대구치를 발치해야 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치아를 잃게



<Cabug의 Capuchin 수녀원에서 수녀님들과 원생과 함께. 사진제공: 필봉16기>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료 환경의 격차를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낮선 환경과 제한된 장비 속에서 진행된 진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순간순간 긴장과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 발치 술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순히 술기를 많이 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제한된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상적 자신감 또한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술기를 연마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어떤 치과의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술기가 뛰어난 치과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환경과 삶을 이해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고민할 줄 아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감사 인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 그 마음의 무게를 기억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활동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며 진료해 나가는 모든 순간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위수연(치의학과 3학년)

안녕하세요, 필봉 16기 위수연입니다. 저에게 이번 필리핀 봉사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지에서의 일정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이어지는 발치 작업과 새벽까지 계속된 기구 소독, 재료 정리까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형용할 수 없는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배님들 없이 동기들끼리만 떠나는 길이었기에, 기구나 재료를 빠뜨리지는 않을지, 우리가 실전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칠 만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보낸 시간은 그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동기 5명은 하나가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된 우리 치대팀,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양연미 교수님과 김하영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따뜻하게 저희를 보듬어 주신 의대 교수님들과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정을 나눈 의대 친구들 역시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제 인생의 첫 발치와 레진 충전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며 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느낀 이 보람과 사랑을 잊지 않고 졸업 후에도 기꺼이 나눔의 자리에 함께하는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가영(치의학과 3학년)



이번 필리핀 치과 봉사활동을 결정하기까지 제 안에는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환경에서의 진료와 부족한 장비, 그리고 예상되는 고된 일정은 준비 과정 내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번 만큼은 나약한 자신을 깨고 정면으로 부딪혀보고 싶다는 오기가 저를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습니다.

현지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저희는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진료 준비로 고작 3-4시간 남짓한 수면을 취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해 몸은 무거웠지만 진료소 문이 열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마주하면 신기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체력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며, “힘들다”는 투정보다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봉사 마지막 날 찾아왔습니다. 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니, 치근만 남은 4개의 root rest가 있었는데, 치은 하방 깊숙이 있는 데다 치조골과 단단히 유착되어 있어, 제 낮은 실력으로

는 결코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환자분도 긴 시간 입을 벌리고 버티느라 무척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인 끝에 마지막 뿌리까지 모두 발치했고, 환자분은 약을 받아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저를 찾으셨습니다. 더운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발치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굳이 다시 걸어 들어와 제 손을 맞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본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치료자의 노고를 먼저 헤아려주는 따뜻한 마음씨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치유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번 봉사에서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치료가 끝나면 항상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취의 통증과 발치의 공포를 견뎌낸 직후에도 그들이 보여준 밝은 미소와 감사 인사는 제가 흘린 땀방울에 대한 그 어떤 대가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제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순수한 기쁨은 온몸으로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의료 기술을 나누고 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을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어떤 어려운 과제가 닥쳐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와 다시 돌아와 건네주신 그 인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치열했던 기록은 앞으로 제가 어떤 시련 앞에서든 뒷걸음질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타인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곽호운(치의학과 3학년)



이번 2월, 낯선 나라의 진료 의사 앞에서 있던 저는 ‘봉사자’ 라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학생’에 더 가까웠습니다.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치과대학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에서, 저는 치과대학 소속 5명 중 한 명으로 참여하여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진료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제 실력의 한계와 의료인의 책임,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봉사일이었던 23일, Murcia 지역에서의 진료는 긴장과 부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이었던 만큼 모든 것이 낯설었고,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진료 시스템 속에서 저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특히 발치 술기에 능숙하지 못해 스스로 아쉬움을 느꼈고, 전반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실습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실

제 환자를 마주하니, 제 부족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24일 수녀원에서의 봉사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오후에만 88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제한된 기구와 인력 속에서 설 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진료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기구 절립 사고까지 발생하여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진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료 행위가 단순한 술기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이 동반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25일에 간 곳은 봉사단이 처음 방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환자가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Surgical 발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이핸드피스 사용이 미숙하여 결국 발치에 실패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환자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술기 실패를 넘어, 환자 한 분 한 분의 하루와 삶에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따로 교과서를 펼쳐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일에는 앞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시 Surgical 발치에 도전하였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전날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술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팀원들 또한 현장에 익숙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저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실패와 고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저는 술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은 제게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챙겨주신 양연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하며 봉사를 이끌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필리핀 봉사 활동은 저에게 ‘잘하는 학생’이 되기보다 ‘책임감 있는 의료인’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잊지 않고, 더 성숙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관(치의학과 3학년)



따뜻한 웃음, 순수하게 고마워하는 마음, 밝게 인사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원내생으로서 늘 병원에서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정작 내가 한 진료의 결과를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봉사를 통해 직접 술식을 준비하고 치료한 환자에게 감사를 받으면서, 일의 결과에서 오는 보람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준비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현지의 환경은 한국의 치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감염 방지와 약물 사용에 있어서도 타협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불평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고, 또 어떤 이는 제게 신의 축복을 빌어주

Vision 2030
Global Leader in Dentistry

역량있고 행복한 아원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그들이 전해준 진심 어린 감사가 교차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업무 체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환자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었고, 2일 차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 주며 말없이도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료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치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에서 어시스트를 하며 '발치는 다른 술식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편이 아닐까'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과 레지던트 선생님들께서 몇 초만에 발치를 마치시는 모습을 보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재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치아를 마주했을 때는 환자를 돌려보내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치과의사가 되어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과 김하영 선생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동안만큼은 도움 없이 끝까지 해내 보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낸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

습니다. 제가 수십 번 시도했던 부위를 교수님께서 단 한 번에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며, 발치는 힘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선정과 올바른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어 외과 수술 장면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종괴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치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직 매트릭스 봉합'을 직접 보게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진료부에서 의대 학생들이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봉사는 길면서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제게 남긴 의미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가 제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나는(약제부원 의예과2학년)



의정 갈등으로 인한 1년 반의 휴학 기간은 저에게 진로와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사하는 의사'라는 꿈이 생겼고, 이번 필리핀 봉사단 활동은 휴학 기간 동안 품었던 막연한 꿈을 지금 제가 공부하는 학교라는 공간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Murcia 지역, 둘째 날의 Capuchin 수녀원, 셋째 날의 Binalbagan 지역에서는 주로 약제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출발 전 한 학기 동안 책으로 준비했던 시간보다,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1시간이 약의 성분명과 목적, 용량을 익히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오후, 김선준 교수님 옆에서 직접 약 처방을 내릴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은 단순히 약을 '공부'한 것이었지,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 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느라 시야가 좁아진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결국 한 명의 환자를 돕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자, 밤을 새워 약을 정리하는 시간도 기꺼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치워야 할 일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찾아온 환자가 약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힘들기보다 보람찰 수 있었습니다.



<바콜로드 후광유지원 원생들과 이정근 선교사님과 함께. 사진제공: 필봉16기>

마지막 날 Pontevedra 지역에서 이론 교수님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입니다. 이론으로만 죽어라 공부했던 해부학 지식이 실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보며 이론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의 서툰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히 답변해주셨고, 특히 직접 'twitching point'를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앞으로 의대 공부를 이어갈 때 '이것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4일간의 봉사 기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랬기에 더욱 소중하고 반짝이는 기억들이 남았습니다. 봉사하는 의사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배웠지만, 동시에 그 길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봉사의 경험은 앞으로 제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동력이자 기둥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일했던 봉사단원들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지안(안과부장 의예과1학년)



작년 여름 필리핀 봉사단 16기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의예과 1학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기보다, 어떠한 형태로든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필봉 16기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필봉 16기의 일원이 되고 처음으로 선배님들께 진행해주신 스터디를 들으며, 과연 내가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도 예과생의 신분으로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고 그때까지는 아직 필봉을 임하는 태도에서 진지함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후 여러 교수님들

께서도 해주신 스터디, 여러 부서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고 순식간에 출국날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지 않았고, 현지 봉사지에서 사용할 테크닉이나 지식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수님, 선배님들이 직접 환자를 보고 그걸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둘째 날, Murcia에서 1일 차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일 차에는 오전, 오후 모두 안과 테이블에 머무르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부서로 파견을 가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Murcia는 기존 봉사단이 자주 오던 곳이지만, 새로운 멤버로 처음 진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빠격거렸습니다. 로테이션도 다소 매끄럽지 못했고 식사도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날이다 보니 아직 숙련도가 부족해서 손이 많이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에 저의 피드백은 안과 부장으로서 안경과 여러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배부할 수량을 실시간으로 신경 썼어야 했는데, 첫날인데도 거리낌 없이 물건을 소비해서 인공눈물이 일찍 동이났던 점을 아쉬움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도 첫날을 어찌저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필봉의 제2라운드가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부서의 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의 인수인계, 약제 물품 정리 등 모든 단원이 매달려서 겨우 일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도 대폭 줄어들고 확실하게 이때부터 내가 필리핀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다른 단원들과 다 함께 노력하면서 유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일 차는 Bacolod에서 오전에는 라살 대학과 교류를 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하였고, 오후에 수녀원에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접수부 일을 진행하였는데, 처음 진행하는 업무에 소아 환자 위주의 스피디한 접수,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단원들을 괴롭힌 더위가 겹쳐져 7일 통틀어서 가장 멘탈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가 다른 단원들, 나아가 교수님들께까지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고 피드백 시

간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동료들이 계속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많이 위로해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수녀원과 교류하면서 서로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고 다 같이 뛰면서 내면의 에너지가 많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3일 차는 Binalbagan에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처음 가는 봉사지이기도 했지만, 필봉 16기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 수가 적기도 했고 무엇보다 1, 2, 3일 차의 접수와 약제 위주의 봉사보다 학생이 주도하는 진료 위주의 봉사의 중요성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 같이 토의하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모습이 최적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차 Pontevedra에서는 선배님들께서 교수님들 앞에서 진료를 중점적으로 같이 보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핑크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와 다른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후에 정연준 교수님의 외과 수술방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교수님들께서 왜 학생의 주도적인 경험과 참관을 강조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봉사는 큰 의미를 가졌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술을 보고 지식적으로도 느낀 게 컸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해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성적 맞춰서 의대 오고 다들 좋다니까 의사가 되려는 마인드였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4일 차의 봉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느낀 점과 언어갈 점이 많았지만 태도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하며 공동체란 누구 하나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견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 2년 차가 되면서 더 이상 어리광 부릴 위치

가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주도적으로 해내야 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필봉 16기는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평생 추억이 될 것이고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서우(디자인부장 의예과1학년)



필리핀 봉사활동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아마도 그곳에서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약제부원들과 숙소에 모여 약 수량을 파악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던 시간이다. 단순히 약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해보니 그것은 봉사의 기본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부족한 약은 없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하나 확인하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날마다 그 날 많이 쓴 약을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었다. 봉사 현장에서 환자 수가 몰릴 때는 부족한 약이 무엇인지, 서로의 상황을 빠르게 공유해야 했고, 즉각적으로 채워야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부딪히며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Murcia에서 만났던 한 아이와 그 부모님의 모습이다. 아이가 아파서 진료를 받았지만, 메디컬레코드가 어딘가에서 분실되는 바람에 약을 제때 받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접수와 진료는 무사히 끝났지만, 마지막 단계인 약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 그

부모님의 초조한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결국, 약은 잘 전달했지만 죄송했고, 동시에 약제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작은 실수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

무엇보다 이번 봉사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태도였다. 힘들 법도 한데 얼굴을 구기지 않고, 자기 일이 끝나면 쉬지 않고 다른 부서를 도와주려는 선배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필리핀 봉사는 내 대학 생활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경험이 될 것 같다. 아직 예과 신분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 얼른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함께 간 16기 단원들과 교수님들, 현지에서 도움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주예린(미디어부장 의예과1학년)



해외 봉사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며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봉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과 1학년으로서 비록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지만 교수님, 선배님들이 환자를 다루는 모습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에 합류할 수 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의 행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스스로 다짐했던 것 중 하나는 ‘많이 웃자’입니다. 이번 16기의 구호가 ‘민자, 웃자, 파이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봉사의 취지와 잘 어울리는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웃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환자를 보면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봉사

첫날 저는 접수를 맡았는데 첫 봉사의 문을 여는 접수이기에 많이 떨렸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접수를 시작하며 환자를 받을 때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무표정으로 다가오던 환자도 제가 웃으며 대하자 밝게 웃으며 인사로 답해줄 때 작은 표정 하나로 분위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차를 마친 후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피로가 쌓이며 어느 순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봉사장이기도 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제 모습이 좋게 비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일차 봉사에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총 4번의 봉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의 세팅이 미숙한 점도 있었고 첫 봉사만큼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교수님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를 반영하여 2일 차에는 훨씬 더 매끄러운 봉사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3일차에는 봉사의 전반적인 틀이 잘 잡혔지만 접수부와 약제부에 집중된 나머지 미처 진료부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봉사를 계획하였고 4일차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봉사의 성격이 다르고 다음 날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며 교수님의 날카로운 피드백과 학생들의 노력이 공존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최선을 다하여 다음날 봉사를 준비했고 이에 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원들과 함께 지내며 느낀 유대감 또한 큰 선물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버텼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선배님들, 교수님들께 배우는 것 자체로 소중했고 동기들과 나눈 이야기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일주일만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떠났지만 돌아보니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필리핀에서의 봉사만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얻은 충만함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 아쉬움마저 앞으로의 저를 움직이게 할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앞으로 의학을 대할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필리핀 봉사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 예과 학생들을 챙겨주신 본과 선배님들, 그리고 약 4개월 간의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한 예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지윤(오락부장 의예과1학년)



드디어 필리핀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합격 소식을 안고 기대에 부풀 마음을 가지고 첫 모임에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봉사 일정을 끝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저에게 이번 필리핀 봉사활동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고 매우 기쁘고 설레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의과대학 입학 후 의정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의 일종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을 치유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과생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맡은 오락부장 역할을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접수를 빨리 마치는데 급하여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드리지 못하고 제게 주어진 둘도

없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환자라고 여겨도 될 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점이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잘 간직하고 한국에 돌아와, 본과 공부를 잘 끝마치고 다시 필봉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정연준, 김선준 교수님과 봉사활동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치대 선생님들, 예과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고 챙겨준 본과 선배들과 애정하는 예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필봉 16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조윤빈(선물부장 의예과1학년)



나와 타인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저의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을 위해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 이후 내 삶 속에서 여유를 찾고 그 여유와 체력,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챙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도울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그만큼 제 그릇이 크지 않았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봉사활동 속에서 이런 저의 생각들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저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했고, 그에 대해 스스로 포장하기 위해 '남들을 돕기 위한다'는 명목을 붙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백내장이 있으신 환자 분이 저에게 진료를 보러오셨습니다. 그 분은 백내장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을 앓고 계셨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I don't have enough money' 라고 말하며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환자 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다.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수도, 당장 수술을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말씀을 조금 더 들어드리는 것 밖에 뭔가 더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어 비슷한 상황의 환자를 만났을 때 이번의 후회를 떠올리며 나의 것을 희생하며 환자를 더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중 필리핀 분들을 돕기 위함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쌓고, 타인을 돕는다는 도덕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정말 열악한 최전선에서 건강과 사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 분들 중 상당수가 의료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 그 경로가 작년 전북대학교 의료봉사였던 분들이 많이 존재했고, 그 중 그 질병을 올해까지 방치해두신 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며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 타인, 즉 환자분들의 건강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의료봉사를 다니며 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봉사활동은 가볍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저에게도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방향성을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봉사활동에 몰입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교수님들과 단원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성(서기 의예과1학년)

처음에는 큰 생각도, 기대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다. 필리핀 봉사활동을 간다기에 각오는 분명하게 있었지만 어떤 활동인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을 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다. 분명 스터디 등의 이유로 모일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했지만, 가기 전까진 정말로 막연하고 또 의문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첫날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분명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실전에서 발생한 수많은 변수로 인해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흐름을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온전치 않았기에 접수부와 안과 환자 한 명 한 명을 받는 것이 공포의 연속이었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할지, 어디로 보낼지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당시 제 피드백은 ‘내가 봉사활동에 임할 각오가 부족하다’ 였는데, 단순히 말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1일차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동안 저는 진료부 일을 도우면서 차트 정리를 하었는데, 김선준 교수님께서 환자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던 게 그때 떠올랐습니다.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접수한 환자는 얼굴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저 또한 환자에게 정성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환자들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세한 건 약제부장 및 약제부원분들의 소감문에 적혀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약제를 맡았었습니다.)이후에 저녁 때 수녀원에서의 환대는 첫날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 주었습니다. 셋째 날 또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저녁, 필봉이 왜 존재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피드백 시간에 가지게 되었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희 예과생들도 진료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너무 심하게 당황하고 또 급하게 환자를 제가 대하니, 크게 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먹으면서

김선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내가 너(환자)에게 정성을 다할 테니 너도 나를 도와줘라’ 라는 것으로, 환자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이 떠올라 가까스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날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 얻어가는 것도 많았지만, 이날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번 필봉 때 얻어간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얻어간 것 중 가장 의미있었던 건 의사로서 환자를 마주해야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진료는 막연하게 멀리 있던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렇기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4일차 때 이렇게 계기를 맞게 되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 더 느낄 수 있었던 건 열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까지 줄여가며 매일매일 다음날 봉사준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옆에 있는 저 또한 이 봉사활동에 더욱 더 진심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건 저의 지식 부족이었습니다. 접수부 일을 볼 때도, 진료부에서 환자를 볼 때도 계속 느꼈던 건 저의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공부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에 관해, 선배님들은 이 봉사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는데 ‘예과’ 라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느낀 일주일간의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이번에 남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사람 묶은 아니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때가 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와서 저 아쉬운 점들을 죄다 매꿔서 좀 더 후련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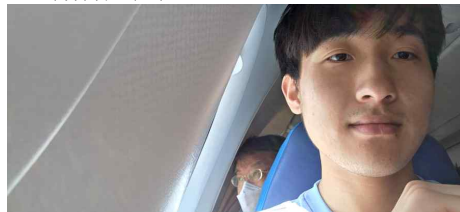
양찬열(약제부원 의예과1학년)

필리핀 봉사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이기에 봉사에 대한 의지가 박혀있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종교적 이야기는 지금 같은 형식에선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며 어쩌면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취급받는 것이



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는 그 한 마디로 충분할 듯합니다. 무엇을 했냐 묻는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저 시킨 일을 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은 역시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단체의 힘에 의존해야만 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동적이었고 때로는 강직했습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자극을 내놓아야 가장 적합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만은 많은 경우 해내 왔기에 좋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고, 결국 계속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신뢰가 받쳐 주니 마음을 놓고 하고자 하는 것에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회가 생긴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심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을 꼽자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에 아주 중요했던, 경험들입니다. 순수한 소감을 말하자면 접수부와 약제부에서 일했을 때에도 충분히 풍부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잡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했으니가요, 몰입과 협력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아래에서 배우니 어쩌서 접수부와 약제부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으나 결국 더 좋았으니 이만 만족합니다. 단순히 저의 지식이 아쉬울 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과 선배들이 부러웠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그다지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진. 찍은 것들 중 단연 웃긴 사진입니다. 켈트적인 유머가 느껴지지 않나요?

필리핀 봉사단 명단/기수 학년순

1기(2009) 14명

이준호(3), 문경필(3), 장미희(3), 정 경(3), 조성중(3), 최지연(3), 김효선(2), 채 령(2), 최성훈(2), 김미정(1), 이화숙(1), 임은영(1),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2기(2010) 14명

김강원(3), 김수민(3), 오유정(3), 임성미(3), 정경희(3), 최성훈(3), 김남식(2), 신 정(2), 이승연(2), 이경현(1), 송보혜(1), 최진희(1),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3기(2011) 15명

김미정(3), 강민주(3), 권지연(3), 김남식(3), 김미영(3), 김경선(3), 서호연(2), 이화정(2), 정새롬(2), 최준탁(2), 김기욱(1), 김민규(1), 서보람(1),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4기(2012) 16명

송보혜(3), 김현호(3), 이동현(3), 최진희(3), 박수경(2), 염지연(2), 이진경(2), 조경태(2), 김민주(1), 김혜림(1), 박지훈(1), 양현철(1), 서치원(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5기(2013) 16명

김기욱(3), 박수경(3), 안성현(3), 장 원(3), 최민준(3), 김사현(2), 박다정(2), 조봉주(2), 권은영(1), 김진호(1), 양은혜(1), 김진환(치3), 오재호(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6기(2014) 17명

박다정(3), 김다솔(3), 박영명(3), 진보미(3), 김성열(2), 이보아(2), 이영은(2), 최종훈(2), 권주환(1), 심정은(1), 이다형(1), 이준형(1), 김대영(치3), 윤영진(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7기(2015) 18명

김성열(3), 김솔기(3), 이소연(3), 박사노(3), 정상희(3), 고지은(2), 김민영(2), 김원형(2), 윤수현(2), 강수진(1), 박지운(1), 송성규(1), 유혜선(1), 김종욱(치3), 김연수(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8기(2016) 19명

이준형(3), 김정우(3), 김민지(3), 차승아(3), 한아름(3), 손지희(2), 황윤지(2), 김동준(1), 김에스더(1), 조우태(1), 지승연(1), 한성진(1), 성현창(치3), 정자실(치3), 배민수(치3), 한치훈(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9기(2017) 21명

강수진(3), 김상연(3), 김효선(3), 이세환(3), 차하은(3), 홍승표(3), 이윤진(2), 이민영(2), 이찬미(2), 임은희(2), 박충희(1), 신수경(1), 정한준(1), 김유정(1), 차승아(4), 윤형준(치3), 김희수(치3), 최유리(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10기(2018) 22명

이찬미(3), 라영천(3), 최소윤(3), 박준석(3), 이은진(3), 채진아(3), 안다예(3), 이주영(2), 김보경(2), 이정인(2), 조상원(2), 윤영지(2), 강현우(1), 민강우(1), 김나운(치3), 이주영(치3), 김정민(치3), 유가을(치3), 이미린(외과 전공의),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11기(2019) 23명

김유정(3), 정기은(3), 황윤경(3), 허예린(3), 이정현(3), 진유진(3), 정지운(3), 조예린(3), 조석규(2), 김우재(2), 신지혜(2), 송채민(2), 박재용(1), 김수현(1), 이재환(예1), 김한솔(치3), 손예준(치3), 정원준(치3), 김형준(치3), 이미린(외과),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12기(2020) 20명

송채민(3), 정원철(3), 고영준(3), 백누리(3), 신 설(3), 왕어진(3), 이현주(3), 장혜원(3), 정진희(3), 김동욱(2), 신미래(2), 장지아(2), 정낙원(2), 김시연(예1), 김희민(치3), 정홍철(치3), 지혁근(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13기(2021) 19명

정낙원(3), 최수진(3), 이윤지(3), 김시윤(3), 김사라(3), 권예은(3), 양윤주(3), 임종산(2), 조하원(2), 김재균(1), 노승용(1), 이규민(예2), 김하민(예1), 나희권(예1), 이승현(예1), 한원창(예1),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14기(2024) 20명

하현수(3), 소예진(3), 유환승(3), 전예남(3), 정유진(3), 조동현(3), 김경섭(2), 한원창(2), 김민지(1), 주유희(1), 강지동(예1), 김영재(예1), 기수민(예1), 홍찬의(치3),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이준호(1기, 마취통증), 황주희(감염내과), 김현호(4기, 소청과), 김경민(치과전공의)

15기(2025) 20명

하현수(4), 소예진(4), 전예남(4), 조동현(4), 김민지(2), 홍찬의(치4), 김민진(치4), 양서현(치4), 권승혁(치3), 김동현(치3), 김민정(치3), 김민정(치3), 박혜민(치3), 이윤호(치3), 한승연(치3),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양연미(소아치과), 이준호(1기, 마취통증), 김현호(4기, 소청과), 김하영(치과전공의)

16기(2026) 29명

김민지(2), 주유희(2), 신수연(2), 신가연(2), 김지원(2), 이연희(2), 조서현(2), 이승준(2), 장아은(예2), 양찬열(예1), 정지안(예1), 우지윤(예1), 조윤빈(예1), 김서우(예1), 주예린(예1), 이준성(예1), 장현규(치3), 정승관(치3), 곽호윤(치3), 위수연(치3), 사공가영(치3), 김하영(치과전공의), 김선준(소청과), 정연준(소아외과), 조용곤(진단검사), 양연미(소아치과), 이준호(1기, 마취통증), 황주희(감염내과), 김미정(1,3기, 신장내과)

도움주신분들

전북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국립대육성사업단, 양종철(병원장), 권근상(전, 의대학장), 강경표(의대학장), 안효초(약제부장), 이동훈(백제약품), 최지연(1기), 이승연(2기), 김기욱(3,5기), 송보혜(4기), 안성현(5기), 박수경(5기), 심정은(6기), 김유정(9,11기), 조상원(10기), 이정인(10기), 이정현(11기), 황윤경(11기), 장지아(12기), 임종산(13기), 이경미(소아청소년과의원), 정주미(소아청소년과), 이상권(가정의학과), 조민영(의대행정직원), 신은정(간호사), 최한나(간호사), 김윤선(간호사), 박익새(간호사), 이슬비(간호사), 정경희(CMS센터), 김주옥(CMS센터)

의약품 및 후원물품 제공 단체

Ethicon, Covidien, YG메디칼(박용지), 중외제약, 온누리 열린 약국

필리핀 현지에서 도와주신 분

이정근(선교사님), 폴라(Pola Cordova-de Los Reyes)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16th JBNU
Medical
& Dental team**

= 안내 =

필리핀봉사단 홈커밍데이
2026년 7월 25일(토)
시간, 장소(추후 공지)

제작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필리핀봉사단